

군산시, 주요 관광지 쿨링포그 시스템 확대

초원사진관 · 은파관광지 등 이달 안 시스템 추가 설치
관광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 규모 등 면밀히 검토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연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더위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무더위 대책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대표 관광지 초원사진관과 은파관광지, 청암산 오토캠핑장에 이달 안으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수돗물을 활용해 미세 안개를 생성하는 쿨링포그 시스템은 피부에 닿는 즉시 증발해 인체에 무해하며 미세먼지 흡착도 가능해 분진제거 기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선유도 해수욕장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포그 시스템은 안개를

이용해 주변온도를 낮추고 주변의 조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하는 등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될 관광지에도 미관을 살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도록 설치 위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이 동선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폭염에도 끄떡없는 여름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주요 관광지를 정비해 나갈 예정



현재 선유도 해수욕장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포그 시스템은 안개를 이용해 주변온도를 낮추고 주변의 조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하는 등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며, 불편함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명품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에 맞는 관광 편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군산시는 전북도내 스마트 관광을 유도하는 전북투어패스의 자유

이용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시간여행마을과 야외수영장을 전북투어패스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실속 있고 시원한 여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장점마을 해결책으로 비료공장 매입 필요”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5분 발언서

익산시의회 임형택의원(영등2동, 삼성, 부송동)은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문제와 관련 “익산시가 비료공장을 매입하여 시민 생명공원, 환경공원 등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 한다”면서 특히 “주민들은 역학조사가 끝나도 집에 제3자가 공장을 매입하고 현재 시설을 모두 철거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 제3자가 다시 비료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비료공장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로당 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기청정기는 미세 먼지를 포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창문을 밀폐해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익산시는 경로당, 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예산 15억 6천여만원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 전북도와 충분히 협의, 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해주시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해경, 휴가철 안전 위협 위반 행위 강력 단속 예고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 활동을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빈번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3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지만 어선을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해상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또 해상에서 운항 중인 레저보트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경문을 강화하고 하선이 금지된 갯바위 순찰활동을



없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도주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기자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과속,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해 해서는 계도없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도주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뜰 우리 동네 공부방 개소식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제공
8월 중 운영 시간 확대 야간 시간제 서비스까지

익산시가 30일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키움뜰 우리 동네 공부방 개소식을 열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은 익산시가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인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공모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에 선정 시범 운영하고 있는 키움뜰 우리 동네 공부방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역본부장 및 학부모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키움뜰 우리 동네 공부방은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익산시에서 마련한 시책 중 하나로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공부방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들이 매일 기부하는 사회 공헌 기금으로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은 공부방 사업에 공모,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 공모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 및 도서 2천여권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생활이 마음껏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키움뜰 우리 동네 공부방은 7월 2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8월 중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초등 야간 시간제 돌봄 서비스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소한 키움뜰 우리 동네 공부방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돌봄 교사를 채용하고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통해 익산시민의 특화 초등 돌봄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익산시의 영유아 가족 육아 문화 확산과 보육환경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넘어 초등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통합 육아, 돌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익산시민들 누구나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육아와 돌봄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선발 신청 접수

군산시는 제56주년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군산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을 선별하여 “군산시 시민의 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상부문은 문화예술체육장과 공익봉사부문으로 문화예술체육장과 공익봉사부문으로 대상자는 군산시 거주자나 군산시 출신자로서 해당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이면 된다.

후보자는 각급기관장,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및 공적조서,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해 다

음달 20일까지 군산시청 총무과(시정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akr) 고시공고란을 통해 내려받거나 군산시 총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수상 후보자에 대해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별한 후 오는 10월 1일 개최되는 제56주년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2018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추진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소식재배 시범 단지를 오산농협과 연계해 70ha 47농가를 대상으로 오산 들녘에서 추진중이다.

현재 폭염속에서도 생육이 잘 입소문을 들은 많은 농업인들이 현장을 찾고 있을 정도다.

벼 소식재배는 육묘 상자당 볍씨 300g 정도를 밑파해 알이앙기가 아닌 전용이앙기를 사용, 포기당 3~4본씩 50주/3.3㎡를 심는 것으로, 1평에 포기당 5~12본을 70~80주 심는 일반이앙기에 비해 적게 심고 이앙 후 왕성한 새끼 치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벼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오산농협이 농작업을 대행하여 신동진 벼, 호쾌벼, 보라쌀벼 3품종을 지난 5월 말까지 이앙을 마치고 재배하고 있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인 만큼 생육을 잘 관찰하고 이상 폐기(출수기) 25일~15일경인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이삭거름을 10a(300평)당 N-K 복합비료의 경우 15kg 정도 적량 사용과 폭염속 물 갈러대기, 8월 10일경 철저한 병해충방제 지도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